

오피니언

기고

김덕진



계절답지 않게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눈까지 제법 왔다. 바쁜 일과 때문에 깜빡 잊었던 시간 감각이 눈을 보는 순간 떠올랐다. 저물어 가는 기추년을 아쉬워하며 운동화를 신었다. 아니, 하얀 눈을 밟으며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뒤돌아보니 별 한 것도 없이 한 해가 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 있다는 것이 고마워 일년의 흔적을 고이 간직하고 싶어 무등산으로 발길을 향했다. 무등산 정상 부근은 온통 하얀색으로 바뀌었고 산자락은 잔설로 뒤덮여 있었다.

옛길의 잔설에 묵은짐 녹이고

어느덧 발길은 무등산 옛길로 향하고 있었다. 어디로, 어떻게 갈까 고민도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 많이들 나왔다. 나 혼자

만이 아니었다. 금세 좁은 길 위에 사람들이 가득 찼다. 혼자서, 둘이서, 셋이서, 연인끼리, 가족끼리, 친구끼리. 총총 걷는 사람, 느릿느릿 걷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가

무등산 옛길의 잔설을 밟으며

는 사람, 많았이 가는 사람 등등 다양했다. 나는 혼자서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었다. 일부러 잔설이 있는 곳을 찾아 걸으며 발자국을 남겼다. 사각사각 소리가 켜졌는데 울렸다. 잔설 밟는 소리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음과 현란한 불빛을 잠재워버렸다. 그 사이에 기일에 맞춰야 하는 원고 집필의 압박감도 사라져버렸다. 일년의 묵은 짐도 잔설에 녹아 한 개의 깃털처럼 가벼워진 것 같았다. 마음의 짐을 훌훌 털고 내려오는 발길은 마냥 가벼웠다. 방출과

충전의 기회를 새로이 맞본 날이었다. 산수동에서 서석대에 이르는 무등산 옛길이 올해에 두 번에 걸쳐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옛길을 찾았다. 방문한 사람들의 평판도 좋았다. 무등산 옛길은 근래에 보기 드문 광주시의 역사임에 분명하다. 왜냐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냈기 때문이다.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더 빛나게 하였고, 고품격의 시민 휴식처를 제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환경 친화적이어서 자연 친해 논란을 잠재웠던 점과 1천 미터가

처럼다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접근성을 지적할 수 있다. 대중교통 노선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으나,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옛길 위에 역사문화들

둘째, 안내관 구비를 들 수 있다. 옛길 입구에 옛길 전체를 조망하는 안내판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갖춰지면 좋을 것 같다.

셋째, 길 위에 스토리를 얻는 일이 필요할 수 있다. 옛길은 우리 조상들이 거닐었던 길을 복원한 것이므로 그곳에는 많은 역사문화가 담겨있다. 이를 발굴하여 게시하거나 사이버상에 탑재하면 좋을 것이다.

넷째, 새로운 옛길을 복원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다. 무등산과 광주 도시와 광주 역사문화, 3자를 연결하는 큰 그림의 옛길 복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은 조만간 하나씩 갖추어질 것으로 여긴다. 기왕의 관계자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충정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 <광주교육대학교 교수>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증고칼럼

현지 스님



2010년은 경인년 호랑이 해다. 범은 단군신화에 나오는 우리 민족과 친숙한 동물이다. 하늘나라 한인(하느님)의 서자(庶子)인 환웅이 인간세상을 동경하여 3천의 하늘 사람(신)과 함께 태백산(묘향산)기슭에 내려와 신시(神市)를 만들었다. 그때 곰과 호랑이 한 마리가 항상 하늘에 빌기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환웅이 솥과 마늘을 주며 백일 동안 햇볕이 보이지 않는 굴속에서 정

며 살자. 인생은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다. 인간은 태어나 무기(無記)의 49일이 지나면 부모에게 미소를 짓는다. 아기의 그 미소는 부모의 모든 시름을 다 잊게 하는 자식으로서의 효능의 시작이다. 더러 사람들은 가정도 어려운 데 있어야 베풀 것이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넉넉하여 베푸는 사람이 없다. 부족한 가운데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심시일반 마음을 모으는 것이다. 어느 날 어떤 불행한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며 살자

성격 기도하면 사람이 되리라 하였다. 참지 못한 범은 사람이 되지 못했지만 곰은 여자가 되었다. 세월이 가도 혼인해오는 사람이 없어 신단 나무 아래서 수태되기를 빌었다. 지극한 정성에 환웅은 인간모습으로 변화하여 결혼해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다.

왕검은 고조선을 세워 1천 5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후 아사달(백두산)에 들어가 산신국사(山神國師)가 되어 우리 민족 토속신앙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 후 호랑이는 산신의 수호자이거나 전령이 되어 샅된 것을 물리치는 영물이 된 것이다.

새로운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일도 많고 탈도 많아 시끄럽기만 하던 지난 세상사 일들은 뒤로하고 새해에는 화기(和氣)가 넘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 범처럼 샅된 것을 물리치고 약자를 보호하는 희망찬 경인년으로 맞이하자.

연말연시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손길들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우리 모두 법적인 만큼 약자를 보호하고 베풀

사람이 성현을 찾아와 신세타령을 하였다. “저는 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까? 하늘이 원망스러워 죽고 싶습니다.” 그러자 성현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네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저는 가진 것이 없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베풀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베풀 것은 일곱 가지나 되느니라. 첫째, 너의 마음을 쥐라. 둘째, 몸으로 동참하라. 셋째,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아라. 넷째, 웃는 얼굴로 대하라. 다섯째, 덕담을 하여라. 여섯째, 겸손의 미덕을 보여줘라. 일곱째, 끝마무리를 잘하여라.” 이것이 재물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 일이다 하겠다.

흘러가는 물도 떠주어야 공이 된다 하였다. 무엇인가를 베푸는 행위는 언제 어디서나 인간 기본 덕목이다. 베푸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됴됨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다. 또한, 베풀 정도와 이유로 자신의 내면을 깊숙이 바라볼 수 있다. <무등산 원효사 주지>

법질서 확립, 우리 모두 동참하자

새 정부에서 법질서 확립을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채택, 시행해 나가고 있다. 공중도덕과 법규준수는 아주 기초적이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질서 행위를 보자. 아무 거리낌없이 담배꽂초를 버리지 않았는지, 타인을 의식하지 않은 채 침을 뱉지 않았는지, 공공장소에서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통화를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도로를 점령해버린 주·정차 차량,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하는 보행자 등 우리 주위에서 지켜지지 않는 기초질서는 이무 해이될 수 없다.

이 모든 게 우리 스스로가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문화의 부족으로 결국엔 상호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초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는 공공력과 법질서를 우습게 만들어 우리 사회가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알았으면 한다.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오래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에서 배워, 선진인류국가를 만드는 출발점이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법질서 확립에 우리 모두 동참했으면 한다.

▲하여라·순천시정 자치행정과

기고

김창국



벌써 한 해의 끝자락이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크게 자랑할 만한 일이나 야무지게 마무리한 게 하나도 없다. 기추년의 한 해도 깊이 있는 삶보다는, 넓이를 추구하면서 대중 살아온 것만 같다. 네온사인인 현란한 충창로의 불빛과는 대조적으로 공공 연방관의 한 견선에 구세군의 자선법비와 적선을 원하는 장애우의 처절한 몸부림이 교차하면서 시야에 다가간다. 발걸음을 멈추고 두 눈과 두 귀를 막

더군다나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못 할망정 오히려 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장애인이라는 정신적, 신체적 약점을 노리고 장애우는 물론 심지어는 미성년 장애우들에게까지 침범피한 아니 금수만도 못한 패륜 행위에 대한 보도를 대하고 있노라면 뜨거운 분노와 함께 가슴이 아려온다.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결코 그들만의 고통만이 아니다. 그 누구도 예견 할 수 없는 장애인

장애우 돕기 운동에 함께 동참하자

아보며 나의 건장한 두팔과 손을 매만져보며 안도의 한숨을 길게 쉬어본다. 불현듯 신체적인 장애에다, 설상가상으로 언어표현 능력조차 자유스럽지 못한 당사자가 정녕 나왔다면 과연 어떠한 것을가를 그려보노라면 참으로 아찔하다.

가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정신신체자 및 지체부자유 장애우를 대하곤 했었는데 현실이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장애우를 가진 가족이나 뜻있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 그들에 대해 무의미한 시선을 던졌으며 나 역시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우리나라에는 수십만의 장애우들이 살고 있다고 있으며 환경오염과 교통사고의 유발 등으로 인하여 그 숫자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연평균 나는 그들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몸부림치는 그 처절하고도 참담한 모습을 보고도 한마디의 위로의 말도 던지지 못한 채 두 눈을 가만히 감아버리고 외면하여 오히려 마음의 괴로움만 더해준 가슴 아픈 추억이 있다.

될 수 있는 사각지대에서 예비 장애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장애등급이 높은 일부 장애우들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 혜택은 소수에 불과함이 유감이고 정치인들도 그들이 받는 수당을 줄여서라도 좀더 많은 장애우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뜻있는 독자가 및 작·간접적으로 장애요인을 유발하는 기업들에 대해선 관계당국이 검토하여 과감히 별도의 특별세를 부과하여 다각적인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고난과 고통과 절망을 딛고 일어서서 헬렌 켈러 여사처럼 전 인류에게 지대한 공헌을 남길 수 있는 장애우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배출하여 가슴을 당당히 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그들에게 한결溫情 다가서서 작은 것이라도 장애우 돕기에 함께 동참하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실어본다.

<빛고를 자원봉사자 회장>

건전한 팬 문화가 진정한 팬의 모습

일전에 아이돌 그룹 가수 2PM 팬이 생리혈서를 써서 화제가 되었고 또다시 아이돌 그룹 엠블랙 팬이 ‘동맹혈서’를 인터넷에 공개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어찌려고 이러한 제, 그리고 기성인들이 너무나 무관심한 제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건 아닌지 다시금 되돌아 보아야 할 것 같다.

인터넷에 보면 엠블랙 가수의 한 곡성 팬은 손목을 칼로 긁고 혈서를 쓰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사진에는 왼쪽 손목에 칼로 베어진 상처가 보

이고, 붉은 색 글씨로 ‘이창산, 나를 잊지마, 난 너밖에 없어. 사랑해’라고 적혀있다. 사진에는 커터 같이 보인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게 문제다. 청소년 네티즌들은 모방심리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순수한 마음으로 연예인을 응원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추종하고 건전한 팬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 건전한 팬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정과 학교,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더 퍼져나갔으면 한다.

▲이창용·광주시 남구 방림2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시설

이러고도 ‘문화수도 광주’ 유지할 수 있나

지난 2006년 문을 연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이 부족한 교수인력과 학생 감소 등으로 인해 문화산업 핵심인력 양성이라는 개원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제 1기생을 모집한 지난 2006학년도에는 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출발한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은 교수 간 불협화음과 이미지 실추에 학생 지원 감소까지 겹치면서 설립 4년 만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원으로 전락했다.

여기에 전임교수 부족으로 문화산업에 관한 다양한 강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오는 2014년 개교예정인 아시아 문화전당의 전문인력 공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문화전당을 운영할 전문인력 부족은 결국 명실상부한 문화수도 건설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반면 수도권 지역 사립대학들은 문화 관련 대학원 운영 및 개설에 적극 나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안동대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을 개설, 2010학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칫 문화수도를 견인할 고급 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향 광주’에 걸맞지 않은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광주·전남의 인구대비 공연회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예술성이 뛰어난 공연도 예매를 저조로 취소 사태가 빚어지거나 아예 광주는 건너뛰기 일쑤다. 광주시 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은 전국에서 가장 적다.

‘문화수도’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 아무리 으리으리한 문화전당이 들어선들 이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 없이는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없다. 여기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예술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문화수도 광주’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렸던 광주·전남 출신 근로정신대 여성들에게 64년 만에 1인당 ‘99엔(1천300원)’의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지급했다고 한다. 속아서 징용 나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다 겨우 살아 돌아온 것도 억울한 일인데 반세기도 훨씬 넘게 기다려온 보상액이 단돈 1천300원이라니 어이가 없다. 이는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우롱하는 처사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지난 1944년 5월 “일본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교장의 말에 속아 일본으로 끌려갔었다. 당시 장기간에 걸쳐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연금과 저금을 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말 이외에 일금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이들이 후생연금 탈퇴 수당을 청구한 것은 1998년의 일이지만 일본 사회보원청은 11년 흐른 지난 9월 “1944년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후생연금 가입 사

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하고 ‘99엔’씩을 보내온 것이다. 일본의 이 같은 태도는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한 첫 사례다. 하지만 실질 화폐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고작 ‘99엔’을 송금한 것은 과거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침탈에 대한 인식의 근간이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 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은 하토야마 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달라진 인식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은 과거사 청산 노력과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배려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말 따로 행동 따로의 과거청산은 더 큰 문제와 갈등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

강제징용 보상이 고작 1천300원이라니

無等鼓

어릴 적 크리스마스 TV영화의 최고봉은 단연코 ‘벤허’(1959년 작·감독 윌리엄 와일러)였다. 매년 어김없이 재방송돼도 장장 3시간 30분의 대작을 눈을 비비며며 보고 또 보고 했던 기억이 새롭다. 수년 전부터 식상하다는 시청자 여론에 밀려 한두 해 건너뛰더니 올해는 TV프로그램 목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웬지 어릴 적 추억의 한 부분을 잃고 서글프다.

‘벤허’는 신의 섭리를 강조한 선교영화로 분류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불굴의 인간 의지가 이뤄내는 기적을 다룬 영화에 가깝다. 운명의 땃에 걸린 주인공이 포효하다 죽어가지 않고 인내와 용기로 땃을 빠져나오는 예기의 감동은 50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가장 큰 이유다. 배경은 예수 생전인 서기 26년. 유대인 귀족 벤허가 로마인 친구 팻살라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팔리산의 노예로 전락하지만 전쟁 속에서 사람관을 구함으로써 그의 양자가 돼 고향으로 돌아와, 전자 경기를 통해 복수도 하

고 있었던 가족도 되찾는다는 전형적인 권선징악 영화다. 요즈음 영화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을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하지만 ‘벤허’는 그 유명한 전자 경기 장면을 위해 1만5천 톤다. 수년 전부터 식상하다는 시청자 여론에 밀려 한두 해 건너뛰더니 올해는 TV프로그램 목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웬지 어릴 적 추억의 한 부분을 잃고 서글프다.

지금도 고인이 되었지만 주인공 벤허역을 맡았던 찰턴 헤스톤의 명연기는 아직도 뇌리에 깊게 남아있다. 끔찍한 나락 속에서도 운명과 맞서는 투지, 번뇌와 간절한 기도, 마침내 기적을 맞이하는 그의 연기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온누리에 가득 기로 땃을 빠져나오는 예기의 감동은 50년 가까이 사랑받아온 가장 큰 이유다. 배경은 예수 생전인 서기 26년. 유대인 귀족 벤허가 로마인 친구 팻살라의 권력욕 때문에 모든 걸 잃고 팔리산의 노예로 전락하지만 전쟁 속에서 사람관을 구함으로써 그의 양자가 돼 고향으로 돌아와, 전자 경기를 통해 복수도 하

한 성탄절 아침,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추억의 영화 ‘벤허’를 추천한다. 또 지금 좌절하고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인간 ‘벤허’를 떠올려 보기를 권한다. 그걸 통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좌절의 늪에서 헤쳐나올 힘을 얻는 이들이 많았으면 싶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n8@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虎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 F A X	227-0118>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제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02-773-9335>
<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